

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<small>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</small>	보 도 자 료	http://www.kisti.re.kr
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대전(본원): 대외협력팀 박한철 042 - 869 - 0961 / 강동기 0967 서울(분원): 대외협력팀 이승혜 02 - 3299 - 6185 문의: 조운교 인사팀 행정원(042-869-0822)		
배포번호 : 2014-51 배포일자 : 2014.12.19.(금)	매수 : 보도자료 2매	배포처 : 대외협력팀

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가족친화적인 직장 만든다

- KISTI, 출연(연) 중 안정성평가연구소와 함께 신규 가족친화기관 인증 획득 -
- 올해, 유니세프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 선정에 이어 가족친화적인 직장으로 공인 -

-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원장 한선화, 이하 KISTI)이 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가족친화적인 직장으로서 거듭나고 있다.
- KISTI는 지난 2011년 ‘남녀가 평등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여건 조성’을 경영 목표 중 하나로 수립하고 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구축해왔다.
 - 직원들은 사회초년기·가족성장기·가족성숙기·은퇴예정기 등 생애주기에 맞춰 다양한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.
- 사회초년기에는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, 임산부 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.
 -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원 및 직원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출산장려금(1인당 30만원)을 지급하고 있다.
 - 임산부 보호프로그램을 통해서 임산부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포함해 태아검진 시간 보장(월 1~4회), 임산부 야간·휴일 근로제한 제도를 도입했다.
- 가족성장기에는 육아·양육, 가족관계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.
 - 전 직원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해 질병, 사고, 노령 등으로 인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90일 이내의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.
 - 또한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해 자녀 등교시간에 맞춰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

등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다.

- 이외에도 매주 수요일을 ‘가족친화의 날’로 지정하여 정시퇴근을 권고하고 있다.
- 가족성숙기에는 중고생 자녀를 둔 직원들의 교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보조금(국공립 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에 한함)을 지원해주고, 개방형 북카페를 운영해 직원이 가족과 함께 독서 및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.
- 은퇴예정기에는 퇴직예정자를 위해 퇴직 후 취업경로 설계를 돕는 은퇴지원교육을 실시하고, 정년퇴직자 가운데 심의를 거쳐 재고용 기회를 부여하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.
- 지속적으로 가족친화 경영을 추진한 결과, KISTI는 12월 19일 오후 3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여성가족부의 ‘2014년 가족친화기업 인증 수여식’에서 2014년도 신규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받는 동시에 출연(연) 중 유일하게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.
 - 이번에 새롭게 인증을 받은 총 444개의 기업·기관(중소기업 257, 대기업 77, 공공기관 110) 가운데 출연(연)으로서는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정성평가연구소와 함께 선정되었다. 유효기간을 연장 받거나 재인증을 받은 기관을 포함하면 국가핵융합연구소, 국방과학연구소 등 총 네 곳이다.
- 지난 2012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우수기관으로, 올해 8월 유니세프의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로 선정되는 등 여성·가족친화적인 직장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.
 - ‘워킹맘’인 KISTI의 한 직원은 “남편의 신병치료를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해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”며 “또한 시차출퇴근제를 통해 아이와 출근길을 함께 하고 서로 이야기할 시간이 늘어나 매우 좋았다”고 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장점을 밝혔다.
- 한선화 KISTI 원장은 “모성보호와 일·가정의 양립은 직원들의 사기와 만족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”며, “앞으로 직원과 직원 가족들이 기관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(끝)